

# 무인자동차 영암 F1경주장 누빈다

## 10개 대학팀 참가 내일 주행 경진대회

11일 영암 F1경주장에서 전국 최초로 정부가 주최하는 '2013 무인자동차 주행경진대회'가 열린다. 이번 대회는 미래 자동차 기술 개발과 산학협력, 첨단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는 대회로 대학생들의 미래형 자동차 개발 및 시연의 장이다. F1 경주장 상설블럭에서 열리며 무료 입장이다. 대회 주관사 홈페이지 (<http://autonomous.ksae.org/>)를 통해 생중계된다. 지능형 자동차(스마트카) 분야의

대표주자인 무인자동차주행자동차는 운전자 없이 레이더, 카메라와 같은 '주행 환경 인식장치'와 GPS와 같은 '자동 항법 장치'를 기반으로 조향·변속·가속·제동을 스스로 제어해 목적지까지 주행할 수 있는 차량으로 혁신적인 발전이 예상되는 분야다. 국내외에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해 구글이 사람이 아닌 '구글카'로 운전면허를 취득해 시범 운행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이번 대회는 14개 신청 팀 가운데 기술개발 계획 평가 등을 거쳐 선정

된 10개 팀이 참가했다. 참가팀은 서울대, 건국대, 부산대, 서강대 등 모두 대학 팀으로 이들 팀에는 연구개발비 6000만원과 무인차 개발 장비가 지원됐다. 각 팀은 1년여 동안 기술 개발과 연구를 통해 대회를 준비했다. 우승팀에는 1억원, 2등은 5000만원, 3등은 3000만원 등 총 2억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대회 주관을 맡은 (사)한국자동차공학회 관계자는 "이번 대회가 관련 분야를 연구 개발하는 대학생들의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과 자율주행 분야의 인력 양성에 기여하고 자동차와 IT 등 이업종 간 융복합 발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거의 유사한 환경으로 꾸며졌다. 부대행사로 2013 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와 무인태양광자동차 경진대회의 차량 전시와 학술행사 등도 진행됐다. 우승팀에는 1억원, 2등은 5000만원, 3등은 3000만원 등 총 2억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대회 주관을 맡은 (사)한국자동차공학회 관계자는 "이번 대회가 관련 분야를 연구 개발하는 대학생들의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과 자율주행 분야의 인력 양성에 기여하고 자동차와 IT 등 이업종 간 융복합 발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눈 시린 청산도의 가을



슬로시티 완도 청산도의 단풍이 최근 물들기 시작했다. 군은 단풍이 완전히 물드는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슬로시티 청산도 가을의 향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26일부터 내달 3일까지 '슬로시티 가을의 향기' 프로그램

완도군은 10일 "한국적인 슬로 시티 멋과 삶을 고스란히 간직한 청산도에서 가을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슬로시티 청산도 가을의 향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열리는 '슬로시티 청산도 가을의 향기'는 완도군의 대표적인 볼 축제의인 '청산도 슬로우걷기 축제'의 주요 프로그램에 가을의 정취를 한껏 느낄 수 있도록 새롭게 마련됐다. 주요 프로그램은 슬로길을 걸어보는 '청산완보 행운의 릴레이', 어린 시절 추억을 떠올리는 '추억의 보물찾기' 및 '소원 바람개비 체험', 청산도 출신 문화예술작가들의 '섬마을 이야기전' 등이다. 또 청산도 홍보 블로그 중 방문 희망 신청자에 대한 '청산도 느낌 여행 바우처'는 청산도를 무료로 여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청산도 홍보단의 자격도 주어진다. 슬로시티 청산도의 상징건물인 '느린섬 여행학교'에서는 행사기간 중 모녀, 부자 등 커플 숙박객을 대상으로 요점할인 이벤트와 소정

의 기념품을 증정하는 '너랑 나랑 짝꿍 여행'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서현종 관광정책과장은 "청산도에 오시면 여유와 웃음을 찾고 완도 특산물도 경험으로 가져갈 수 있다"며 "깊어가는 가을 슬로 시티의 매력을 한껏 느끼고 싶다면 청산도로 떠나는 감성 여행을 잊지 못할 좋은 추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는 완도군청 관광정책과(061-550-5431) 또는 '청산도 느린섬여행학교'(061-554-6962)로 하면 된다.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의 기념품을 증정하는 '너랑 나랑 짝꿍 여행'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서현종 관광정책과장은 "청산도에 오시면 여유와 웃음을 찾고 완도 특산물도 경험으로 가져갈 수 있다"며 "깊어가는 가을 슬로 시티의 매력을 한껏 느끼고 싶다면 청산도로 떠나는 감성 여행을 잊지 못할 좋은 추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는 완도군청 관광정책과(061-550-5431) 또는 '청산도 느린섬여행학교'(061-554-6962)로 하면 된다.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 '찾고-듣고-돕는' 밀착복지 호응

### 목포시 250명 '좋은 이웃들' 운영 큰 성과

목포시가 공적자원에 한계가 있는 복지사각지대를 '찾고-듣고-돕는' 체계를 구축, '밀착 복지'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10일 시에 따르면 올 초 주민센터 통장 등 250명으로 구성된 '좋은 이웃들'을 위촉 운영하고, 시회방복지지원단과 민간자원과 연계 추진한 결과 3066세대에 의료·전기료·생계비·교육비·집수리·화재복구비·차량지원 등 6억 1200만원을 지원했다. 또 목포시 자원봉사센터와 유기적인 연계 체계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전방위적으로 나선 결과 지금까지 23가구 250여 만원 상당의 집수리 봉사를 실시

했다. 실제로 치매에 걸린 상태에서 부양가족이 없어 폐지수집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김모(75·원산동)씨를 후원기관인 보현정사 정각나눔회와 연계시켜 긴급 의료비 70만원과 함께 매달 일정액의 생계비를 지원하도록 조치했다. 지적장애 3급인 김모(여·32·하당동)의 경우 아파트 관리비 등 각종 공공금 미납으로 전기와 도시가스 중단 위기에 봉착한 사실을 알게 된 시 통합조사팀은 긴급생계비 80여만원을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시켜주기도 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 '6·25 진도경찰 부대 상륙 기념비' 제막

진도경찰서에 전쟁의 아픔을 잊지 않기 위한 '6·25전쟁 진도경찰 부대 상륙 기념비'가 세워졌다. 10일 진도군은 "최근 진도경찰서 정원에서 이동진 진도군수와 목포보훈도시가스 중단 위기에 봉착한 사실을 알게 된 시 통합조사팀은 긴급생계비 80여만원을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시켜주기도 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에 6m 높다. 기념비는 1950년 UN군의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한 직후 자체 병력과 장비만으로 전국 최초로 단독 상륙작전을 성공시킨 전공을 기리고 있다. 진도경찰의 상륙작전은 1950년 10월5일 늦은 밤 의신면 옥대리의 창고에 갇혀 총살 위기에 처한 경찰가족과 주민 50여명의 생명을 구했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 고창·부안·무주군 '블랙 푸르트' 협약 복분자·오디·머루 제품 공동 개발

고창군과 부안군, 무주군이 공동으로 지역의 대표 특산물인 복분자, 오디, 머루를 활용한 제품을 개발한다. 이들 3개 자치단체는 지난 8일 고창군청에서 '블랙 푸르트(Black Fruit) 활성화사업'의 성공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협약했다. 블랙 푸르트는 '검은 과일'이란 뜻으로 복분자, 오디, 머루를 말하며 3개 지역이 전국 생산량의 70% 가량을 차지한다. 자치단체들은 2015년까지 국비 30

억원 등 모두 35억원을 들여 복분자, 오디, 머루를 이용한 기능성 제품을 개발한다. 개발된 제품에 대한 홍보와 판로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협약식에서 이강수 고창군수는 "최근 성장이 둔화한 이들 특산물이 재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고, 홍남표 무주군수는 "이들 특산물을 활용한 체험 관광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고창=윤창영기자 cy0370@

## 남원 '전국 학교급식 1번지' 부상

### 친환경 쌀 인기 서울·부산 등 대도시 공급 확대

지리산, 섬진강 등 천혜의 자연적 조건을 갖춘 남원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쌀이 전국에 공급되면서 '학교급식 1번지'로 부상하고 있다. 남원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쌀은 재배면적이 380ha로 연간 2천300여t을 생산해 서울, 부산 등 전국 대도시 학교급식에 공급되고 있다. 이달 초 친환경 쌀 전문 '남농영농조합법인'은 통대문구청 관내 39개 초·중등학교에 11월부터 2년 동안 80~100t의 친환경 쌀을 공급하기로 했다. /남원=백선기자 bs8787@

약을 체결했다. 이에 앞서 부산에서는 최초로 남농영농조합법인이 단일업체로 선정돼 연제구 관내 16개 초등학교에 매년 2월까지 150여t을 공급한다. 지난 2월에는 서울 노원구청과 친환경쌀 공급업체로 선정되면서 39개 초등학교에 매년 80~100t을 공급하고 있다. 남원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쌀은 현재 서울·부산 등 전국 150여 학교에 1000t 이상이 공급되고 있다. /남원=백선기자 bs8787@

## 12일~13일 '전북음식문화대전 맛축제'

전통음식과 한식의 맛과 멋을 즐기는 '제8회 전북음식문화대전 맛축제'가 12일부터 이틀간 전북 군산시 월명종합경기장에서 열린다. 행사는 전북 음식을 알리고 새 음식을 발굴하는 경연과 부대행사로 꾸민다. 첫째 날은 창·웰빙음식 경연이 열려 72팀(일반인 20팀, 학생부 36팀,

이주여성 16팀)이 음식 솜씨를 뽐낸다. 경연은 '맛의 고장' 전북의 향토음식과 한식을 이어갈 인재 등용의 장이 될 전망이다. 둘째 날은 향토음식 경연이 열려 도내 68개 음식조리사·시·군·별로 특화·명품음식을 조리한다. /전주·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 전북



### 머리에 돌 이고 '답성놀이'

제40회 고창모양성제가 개막한 10일 오전 560년 전 모양성 축성 당시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풍습에 따라 560명의 부녀자들이 머리에 돌을 이고 성을 도는 '답성놀이'를 재연하고 있다. 13일까지 계속되는 고창모양성제는 군악대와 취타대, 원님부임행렬, 지역주민 등이 참여한 출정식 거리퍼레이드로 시작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제40회 고창모양성제가 개막한 10일 오전 560년 전 모양성 축성 당시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풍습에 따라 560명의 부녀자들이 머리에 돌을 이고 성을 도는 '답성놀이'를 재연하고 있다. 13일까지 계속되는 고창모양성제는 군악대와 취타대, 원님부임행렬, 지역주민 등이 참여한 출정식 거리퍼레이드로 시작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판소리서바이벌 광대전 2R

## 내일 남원 광한루서 1R 통과 5명 경연...청중단이 평가

지난달 큰 화제와 관심을 끌었던 국내 최초의 판소리서바이벌 광대전 제2라운드가 오는 12일 오후 2시부터 남원 광한루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에는 대통령상에 빛나는 대한민국의 대표 명창들이 남원을 찾아 광한루원의 격에 맞는 공연을 준비, 관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지난달 말 1라운드의 A조에는 연기와 소리를 겸비한 허애선 명창, 보성고의 소리진수를 보여준 박춘명 명창, 경남에서 소리를 전하는 현미 명

창, 남원출신 실력과 차복순 명창 등이 열연했다. 120여명의 청중평가단의 평가결과 차 명창이 1위, 허 명창이 2위로 2라운드에 진출하게 됐다. B조 2라운드 진출자는 오는 14일이 공개된다. 12일 오후 2시 광한루원에서 개최하는 2라운드에는 1라운드 A조에서 2명, B조에서 2명 등 4명이 진출하게 된다. 특히 올해는 와일드 카드를 도입 하처한 4명의 명창 중 득표율이 가장 높은 1인에게 2라운드를 진출 기회가 주어져 총 5명이 2라운드에서

열연을 벌인다. 2라운드 미션은 오직 한 사람에게 바치는 '현정'부르기과 임제창 대결로 치러진다. 오는 26일 치러지는 3라운드는 최후까지 남은 2인이 '판소리+퓨전' 대결로 최고의 판소리 광대자리를 두고 치열한 열전이 벌어진다. 시는 광한루원을 찾는 관광객들과 판소리 동호인들의 관람에 불편이 없도록 무대 주변에 팔걸이 의자 및 5단 높이 의자를 설치하기도 했다. /남원=백선기자 bs8787@

## 단신

### 전북도 김장채소 과일공급 우려 수급관리 나서

전북도는 10일 올해 김장채소의 공급 과잉이 우려됨에 따라 수급안정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도는 김장 채소가 예년보다 많이 재배된데다 파종기 이후 기상여건이 좋아 생산량이 크게 늘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 실시한 전국 재배면적 조사에 따르면 가

을 배추는 1만4827ha에서 1554t 가량이 생산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전년 보다는 20%, 평년치보다는 6.3% 가량 늘 것이다. 도는 재배면적 증가와 공급 과잉으로 김장채소 가격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다양한 수급안정을 위한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전주·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 고창황토배기유통 고구마 이어 절임배추 유통

(주)고창황토배기유통은 올해 수박을 시작으로 홍고추와 최근 크게 성장한 고구마를 직접 수매하면서 연중 판매시스템을 구축한 데 이어 절임배추 유통사업에도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지난 2008년 고창군과 지역농협, 군민들의 출자로 설립한 농업회사법인 (주)고창황토배기유통은 올해 생

산농가들을 조직화, 계약 재배를 통해 관련 농산물을 전량 매입하고 있다. 김광욱 대표는 "지금까지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유통구조 개선으로 흑자경영, 원칙과 체계 정립을 목표로 세우고, 행정 및 지역농협, 농업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새롭게 변화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윤창영기자 cy0370@

### 전주시 이주여성 발효식품 만들기 체험행사

전주시는 10일 "전주시 여성단체 연합회 주관으로 결혼이주여성 35명을 대상, 11일부터 1박2일간 솔솔농원에서 발효식품 만들기 체험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 전통음식 및 식문화에 대한 이해

를 돕고 안정적인 한국생활 정착을 유도하고자 마련됐다. 참가 이주여성들은 우리나라 대표적 발효식품인 청국장, 무장아찌 등을 손수 만들고 손맛을 살리는 전라도 김치 담기, 간장·고추장 만들기에도 도전한다. /전주·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 전북도교육청 혼불학생문학상 수상 8명 선정

전북도교육청은 10일 "제3회 혼불학생문학상 수상자로 김예원 학생 등 8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역사소설 '혼불'의 작가 최명희 선생의 문학정신을 확산하기 위해 도내 고교생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열었다. '전라북도 사랑 이야기'를 주제로 한 올해 공모에는 1001명이 응모했다.

심사결과 판소리를 집대성한 신재효의 사랑을 주제로 한 김예원(군산중암여고) 학생의 '소리 있는 사랑'이 대상에 선정됐다. 차상에는 최희진(전주 유일여고) 학생의 '신재효의 도리화', 진소신(전북여고) 학생의 '넙'이 각각 뽑혔다. /전주·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